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갈산공葛山公의 시문학詩文學과 보묵유첩寶墨遺帖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 회장

사람은 곧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문화로 꽃피운 근본이 됐고 물은 사람의 성장을 돕는 절대 요체였으며 돌은 신라의 불탑(佛塔)으로 나타났다.

조선후기 1786년 경주부(慶州府) 사람들의 생명줄이었던 형산강(兄山江)이 바닥을 드러낸 대한(大旱)이 닥쳤다. 경주시 서면 도리와 울주, 금오산 정사에서 발원한 형산강(兄山江)은 국내에서 열 번째 긴 강이다. 한 번도 강바닥이 마른 적이 없었는데 그해 가을은 서라벌(徐羅伐) 천년에도 볼 수 없었던 대가뭍이었다.

김광묵(金光默) 경주부윤(慶州府尹, 1784~86)이 헌관(獻官)으로 나서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경주부(慶州府)에서 가장 명망 높은 유현(儒賢)이시자 대학인(大學人)이었던 갈산공(葛山公, 휘諱 종락宗洛 1745~1819)을 헌관(獻官)으로 모시고 기우제(祈雨祭)를 다시 지냈다.

삼배 도포로 구복(九服)을 갖춘 갈산공(葛山公)이 기우제를 지내고 산밀 선도성모각(仙道聖母閣)에 이르렀을 무렵 비가 내려 도포를 흠뻑 적셨다고 전해진다.

갈산공(葛山公, 휘諱 종락宗洛)이 이 시기에 지은 “敬次客舍板上韻경주객사판상운-경주 객사 현판에 시(詩)를 차운한다”이 한시(漢詩)가 동경관(東京館, 경주객사慶州客舍)에 걸렸다. 경주부(慶州府)를 지킨 사대부(士大夫)이시자 조선후기 문장가의 대표작(代表作)이기에 현판에 음각돼 걸렸다.

경주 전역은 온통 詩로 덮여 있다 권근(權近, 응제시應製詩 신라新羅) 정몽주(鄭夢周, 점성대瞻星臺) 이규보(李奎報, 김생金生의 글씨를 보고) 김시습(金時習) 이황(李滉, 서약정사西岳精舍) 권벌(權轅) 김종직(金宗直, 달도가但勿歌) 등 당대를 대표하는 술한 문신(文臣) 시인(詩人) 묵객(墨客)이 다녔가면서 남긴 시(詩)와 부(賦, 사물에 대한 감상이나 느낌을 그대로 적는 한시체漢詩體의 하나)를 남겼으며 대표작만 경주객사에 현판에 새겨 걸고, 목판본(木版本)으로 남겼다. 객사(客舍)는 자신의 흔적(痕迹)을 꼭 남기는 곳이다.

“敬次客舍板上韻경주객사판상운-경주 객사 현판에 시(詩)를 차운한다.

羅王千載後 나양천재후 신라가 끝 난지 천년이 넘었는데. 遊子夕陽來 유자석양來 나그네 행색으로 석양에놀러왔으니 文物寒烟散 문물한연산 옛 풍경에 차가운 연기만 흩어져있고 官城逝水回 궁성서수회 궁성에는 물만 돌아서 흐르고 있네

鍾鳴故國愁 중명고국원 울리는 종소리 옛 시대를 탄식하고 笛動今人哀 적동금인에 피리소리는 지금 사람을 슬프게 하네. 白日依山沒 백일의산몰 서산에 저녁 해가 넘어가니 瞻星但古臺 점성단고대 단지옛 대에서 별만 보게 되었네. <국역 권기갑權奇甲>

다음은 1779년(정조正祖 3) 경주부윤(慶州府尹)에서 내직으로 승차한 민태혁(閔台赫, 정시문과 장원급제 대사헌大司憲 도승지都承旨) 공(公)에게 보낸 칠언(七言) 이별(離別) 시(詩)다. 부윤(府尹)이란 직책을 떠나 반월성(半月城)을 끼고 흐르는 문천(汶川, 물은 흐르고 바다 모래는 거꾸로 올라가는 전설을 지닌 기이한 강)을 거닐고 포석정(鮑石亭)에서 시문(詩文)을 나누었던 문우(文友)의 정을 담았다.

贈閔府尹台赫 중민부윤태혁<민태혁 경주부윤에게 드리는 글>

軒梅古樹喜春生 한메고수희춘생 부윤이 계시는 동헌에 고목 매화가 봄을 반기니 百里遺痕復整耕 백리유맹복작경 온 고을 백성들이 다시 봄 농사를 시작합니다. 彭澤輕舟傳美蹟 팽택경주전미적 도연명같이 배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니 鬱林奇石繼仁聲 울림기석계인성 무성한숲 기암괴석 백성도 명성을 알고 있고. 月明汶水凝留面 월명파수유류면 달 밝은 문천물에 부윤의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雲起鮑亭覺有情 운기포정각유정 구름이 피어오르는 포석정에 놀던 일이 생각 납니다. 祥鳳終非棲棘久 상봉종비서극구 훌륭한신 자질로 경주서만 오래 머무실분이 아니오니 翩翩前路向三淸 편편전노향삼청 훨훨날아 임금님 곁 정승자리를 향해서 가십시오.

갈산공(葛山公)의 대표작은 역시 매월사(梅月祠)다. 당연히 죽림(竹林, 휘諱 권산해權山海,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이모부/ 공공의 12대조) 선조(先祖)와 같은 가치관(價値觀)을 가진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생육신生六臣)에게로 향한 마음이 들어간 이 시(詩)다.

梅月祠 매월사 來宿先生祠 래숙선생사 선생님 사당에 와서 한밤을 자니 窓前一樹梅 창전일수매 창 앞에 한 주의 매화가 피었으니 月明山寂寂 월명산적적 화사한 달빛에 적적한 산중이라 志士獨徘徊 지사독매회 선생을 추모하면서 혼자서 배회 합니다. <국역 권기갑權奇甲>

갈산공(葛山公)은 홍경래(洪景來) 난 때 의병장(義兵將)으로 출진(出陣)하려다 난이 끝나 돌아오셨던 의인(義人)이시자 문예명세가(文藝鳴世家)로 필명(筆名)을 떨친 조선후기시대 사대부(士大夫)였다. 갈산공(葛山公)은 단종(端宗)복위가 실패로 끝나고 피바

람이 휩쓸던 날, 절명의 길을 택한 단종(端宗)의 이모부(즉 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가 곧 12대조(代祖)이었으니 같은 가치관을 지녔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이다.

매월당(梅月堂)이 21살 때 북한산(北漢山)에서 책을 읽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조카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흘 동안을 통곡(痛哭)을 하다 방을 나와서는 사재를 불태워버리고 뒷간에서 오물을 뒤집어썼다. 그길로 행려 승(僧)이 됐다. 그때 지은 호가 설잠(雪岑)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세조 11년(1465) 경주부(慶州府) 서남산 용장사(甞長寺)에 정작, 6년간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저술하고 여러 편의 시(詩)를 남겼다. 서울로 간 뒤 경주의 선비들이 매월당(梅月堂)이 머문 곳에 영당(影堂)을 짓고 추모(追慕)했다.

갈산공(葛山公) 역시 매월당(梅月堂) 영당을 수시로 찾고 시(詩)를 남겼다.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창작된 금오산(金鰲山) 용장사(甞長寺)에선 지금도 5월이면 “토박이마을” 작가 권순재(權純采, 좌윤공파 37世)작가가 주관한 김시습(金時習) 추모제가, 신라고찰(新羅古刹) 기림사(祇林寺) 매월당 영당에선 다례(茶禮)가 봉행된다.

시(詩)가 시인(詩人)을 찾아온다고들 했다.

갈산공(葛山公)은 붓을 놓을 때까지 범어사梵魚寺 우금偶吟, 호계사체우虎溪祠滯雨, 안계서당유감安溪書堂有感, 청량산차퇴계선생운靑凉山歌次退溪先生韻, 선조죽림공신원복작원운先祖竹林公伸復復爵原韻 등 한시(漢詩) 100여 수를 남기셨다. 시(詩)와 서간문(書簡文) 만사(軹詞)의 산실은 갈산팔영(葛山八詠)일 것 같다.

지금의 경주시 강동면(江東面) 사라리(舍羅里)를 감싸는 해발 150m 낮은 산이나 산체가 빼어나고 동에서 서로 가파르고 좁은 협곡의 운천(雲川) 길, 용추 길이 10리다. 시상(詩想)의 무대가 된 갈산팔영(葛山八詠)은 오우가(五友歌)를 넘는 벗이었을 것이다. 시제(詩題)의 대부분이 나라에 보답하고 선대의 절의 정신을 찾고 재조명하는데 실력(心力)을 쏟았으니 역사적 가치가 더 높다.

갈산공(葛山公)의 학문 세계 역시 윤곡서원(雲谷書院, 1785) 창건(創建)을 주관(主贊)하고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단종의 이모부)의 신원(伸冤, 1789)을 위해 일생을 바친 정신세계에서 잘 나타났다.

경주 임향조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순哲孫 죽림공竹林公의 넷째아들) 문중(門中)을 지켰던 곳이자 학문적(學問的)으로 성장한 지금의 경주시 강동면 사라리에서 살고 갈산팔영(葛山八詠)에서 시상(詩想)을 가다듬었지만 집안 대소사는 늘 뒷전이였다.

100여 편의 시(詩)가 실린 갈산집(葛山集) 보묵유첩(寶墨遺帖)은 공(公)의 6대 봉사촌(권진택權鎭宅, 윤곡서원雲谷書院 운영위원運營委員)이 우리나라 최고의 한문학자 권기갑權奇甲 선생에게 맡겨 국역, 2026년 봄에 출간된다.

이밖에도 여덟 차례에 걸친 상소문을 집착할 서간문(書簡文)과 만사(軹詞) 상량문(上樑文)이 더 있다.

<다음 10월호엔 서간문(書簡文)으로 이어집니다.>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화수가



시조 태사공 신도비. 윤곡서원에 있다.

경주종친회(회장 권혁웅)는 2025년 5월 10일 윤곡서원에서 화수회(花樹會)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웅 회장은 ‘화수가’가 수록된 책자를 종친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옛 어르신들이 화수회를 할 때 부르던 화수가라고 설명해 주었다. 안동권씨 종친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옛날부터 화수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종친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귀한 자료이다. 노래에는 안동권문의 역사와 시조 태사공 이야기 등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노래치고는 상당히 긴 편이다. 몇 회에 걸쳐 지면에 싣도록 하겠다.

어화청년靑年 화수花樹족아 이내 말삼 들어보소
때도 좋아 기해년己亥年에 춘삼월春三月 모춘暮春이라
이팔방령二八芳齡 묘소년妙少年이 춘흥 春興을 못이거서
원근친족遠近親族 비문飛文하여 화수花樹會를 개최開催하니
명산대천名山大川 어대이며 춘일삼방春日尋訪 어대갈고
소년행락少年行樂 짝을 지어 화수동근花樹同根 뿌리찾아
시조소始祖所 첨배瞻拜하고 윤곡풍경雲谷風景 찾아가세
도화유수桃花流水 길을 찾아 보보행진步步行進 들어가니
별유천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은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아닌가
구곡양장九曲羊腸 흐르난돌 굽이굽이 기절치奇絶處요
일구청산一區靑山 그림물색物色 사면四面에 창병蒼屏이라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용모容貌 거동舉動 엄숙嚴肅하여
원히院墟에 올라서니 상전桑田 해수海水 왕적사 往蹟事는
규맥상심觴麥傷心 회포포다 오홀다 천년역사千年歷史
시대時代문화文華 연혁沿革이라 신라고고新羅故都 동일대東一帶에
운제산雲梯山이 웅립雄立하여 용비봉무 龍飛鳳舞 一支脈이
혼연복주欣然北走 삼십리三十里에 유향국 西向國을 개벽開闢하니
청룡백호靑龍白虎 둘러싸고 전후용만前後甬蠻 둘러앉아
명승일구名勝一區 요조窈窕하니 천장지구天長地久 먼 세월歲月에
윤곡雲谷이라 일렷도다 고래사적古來事蹟 말할진대
신라고려新羅高麗 천오백년千五百年 불법佛法이 왕성旺盛할제
불전승암 佛殿僧庵 완연 宛然하다 동만東轡은 탑동塔幢이요
남악南嶽은 남암南庵이요 북악北嶽은 북암北庵이라
서입구西入口에 도덕암道徳庵이라 선인도사仙人道士 왕래적往來蹟은
전설傳說만 남았으니 불법佛法은 적멸寂滅이요
왕적 往蹟이 무병無憑이요 흥제興替가 유수有數하니
도부동도不同에 유불儒佛이요 한양강국漢陽建國 오백년五百年에
유도儒道가 대흥大興하니 삼강오륜三綱五倫 교수敎授하여
충효도덕忠孝道徳 권강勳獎할세 건원임사建院立祠 조두천俎豆薦은
도덕절의道德節義 숭모崇慕이요 당우루제堂宇樓齊 강습소講習所는
읍양진퇴揖讓進退례용禮容이오 오홀다 우리시조始祖
태사부군太師府君 의훈위덕翼勳偉德 우주宇宙에 소소昭昭하사
안동부安東府에 임묘立廟하여 여천만년於千萬年 숭보崇報하고
정종갑년正宗甲年 그시대時代에 이곳은곡雲谷 승지勝地가려

권행완 편집국장
(다음호에 계속)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홈페이지 www.dygroup.co.kr | 대표번호 02-3472-59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5층